

獨 도이치텔레콤

▶ 미 무선통신업체-보이스스트림 합병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이동통신회사 보이스스트림와이어리스(<http://www.voicestream.com>)를 507억달러에 인수한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합병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스트림은 현재 미국에 약 2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환산할 경우 가입자 1명당 2만 달러가 넘는 이동통신 회사로는 기록적인 돈을 받는 셈이다. 도이치텔레콤은 인수와 함께 보이스스트림 부채 약 50억 달러도 인수한다.

도이치텔레콤은 올해 안에 보이스스트림에 50억 달러를 별도 투자할 계획이다.

도이치텔레콤은 미국 내 몇 개 되지 않는 독립적 무선통신업체 가운데 보이스스트림을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최대의 장거리 통신시장인 미국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4년에 설립된 보이스스트림은 지난 해 손실을 기록했지만 미 전역에 사업권을 보유한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 파워텔 인수로 美 통신시장 사업 확대

보이스스트림을 인수하면서 미국 진출에 성공한 도이치텔레콤이 미 이동통신업체 파워텔(<http://www.powertel.com>)을 인수했다.

도이치텔레콤은 보이스스트림이 파워텔을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교환방식으로 매입함에 따라 사실상 파워텔의 모회사가 되었다.

보이스스트림과 마찬가지로 GSM망을 운영하는 파워텔은 보이스스트림과 사업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양사가 결합되면서 미 전체 가구의 90%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파워텔 인수는 궁극적으로 미 최대 통신사업자가 되려는 도이치텔레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GSM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에릭슨

(<http://www.ericsson.com>)

▶ 월드컴과 무선 인터넷 제휴, 이통사업자용 솔루션 공동 개발

에릭슨은 미국의 월드컴(<http://www.wcom.com>)과 무선 인터넷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C넷」에 따르면 에릭슨과 월드컴의 인터넷사업부인 UU넷은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및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올해 말부터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관련 소프트웨어와 일반패킷 무선서비스(GPRS)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 UU넷이 GSM연합 소속 400여개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로밍 서비스망 구축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일본텔레콤과 공동, WCDMA방식 VoIP실험 첫 성공

에릭슨은 휴대폰 사업자 일본텔레콤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방식에서의 VoIP 통신 실용실험에 성공했다고 지난 9월 7일 발표했다.

VoIP는 음성을 영상, 데이터 등과 같은 형식의 신호로 변환해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에릭슨과 일본텔레콤은 이번 실험에서 휴대폰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음성을 데이터 등과 마찬가지로 통신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실험은 에릭슨 독자의 압축 알고리즘인 「ROCCO(Robust Checksum-based Header Compression)」와 에릭슨이 일본텔레콤에 제공한 WCDMA장비를 사용해 일본 지바에서 7~8월 실시됐다.

에릭슨 연구소 부사장 호칸 에릭슨은 『IP가 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모든 사업자들은 음성, 데이터, 동영상서비스를 단일 망에서 구현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의 손실 없이 IP기반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음성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中 광동성 통신망 구축사업 수주, 2개 업체와 5억5000만 달러 계약 체결

에릭슨은 차이나텔레콤의 광동지사과 광동모바일 커뮤니케이션(GMCC)양사에서 함께 5억5000만 달러 상당의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확충사업 수주계약을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5억5000만 달러의 수주계약 체결로 에릭슨은 중국 광둥지역에서 최대의 통신장비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에릭슨은 계약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광동지사과 차세대 유선망 구축과 관련해 R&D 분야에서 기술 협력하는 한편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GMCC에는 시스템 장비 및 일반 패킷무선서비스(GPRS)기술 등을 제공해 이 지역의 GSM망을 확충한다.

▶ IMT 핵심 WCDMA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개발 합의

에릭슨은 네덜란드 NOB사와 광대역부호역할다윈 접속(WCDMA)컨텐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공동 개발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에릭슨과 NOB는 이번 협력을 토대로 IMT-2000 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타기업에게 무선 전화기 및 다른 이동기기를 통해 광대역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차세대이동전화 IMT-2000을 위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서 에릭슨과 같은 선두 통신 장비업체와 NOB와 같은 방송서비스 업체의 협력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에릭슨은 현재 2세대 및 WCDMA, cdma2000, EDGE(전자데이터수집장치)를 포함한 3세대 시스템을 표준에 관계없이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이미 일본, 영국, 핀란드에 6개의 IMT-2000 상용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Huges Space & Communications

▶ 우주 전화 교환대 통신위성발사 성공

Huges Space & Communications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왕복선, 국제 우주정거장(ISS) 그리고 기타 우주선들이 데이터는 물론 음성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통신위성을 지난 6월 30일 성공리에 발사했다.

무게는 약 1.7t로 3억9500만 달러(외화 약4400억원)의 제작비가 든 '추적 및 데이터 중계위성(TRDS)-H'는 앞으로 3만5886km 상공에서 정지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 모토로라

▶ 노텔과 中 독자개발 차세대 이동기술 TD-SCDMA 개발 참여

미국의 모토로라와 캐나다의 노텔네트워크스가 중국이 독자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TD-SCDMA개발에 합류했다.

온라인뉴스 「테크웍」에 따르면 모토로라와 노텔은 TD-SCDMA 기술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4개 중국통신업체와 독일의 지멘스가 속해있다.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모토로라와 노텔이 컨소시엄 가입을 결정한 것은 TD-SCDMA가 중국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발표는 현재 중국 1,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이 각각 비동기식 WCDMA와 동기식 cdma2000을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방식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TD-SCDMA에 대한 업계의 미지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모토로라와 노텔이 TD-SCDMA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 미 항공우주국([http : //www.nasa.gov](http://www.nasa.gov))

국제우주정거장 '맨눈' 관측 가능, 홈페이지 시간표 공개

미국·러시아·일본 등 세계 16개국이 함께 건설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최근 세 번째 모듈이 장착돼 날씨만 좋으면 세계 각국에서 새벽녘과 저녁때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NASA는 이 우주정거장이 인간이 만든 별로서 행성을 포함해 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게 빛난다며 국제우주정거장 홈페이지(www.hq.nasa.gov/station/viewing/fisvis.html)에 우주정거장이 움직이는 시간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NASA는 내년 이후 더 많은 모듈이 장착이 되면 해와 달을 제외하고 금성 다음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러시아·유럽·일본 등이 모듈을 제공하고 로봇 팔은 캐나다가 제공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 '98년에 처음 기초모듈이 발사됐다.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모듈 '자르야'(Zarya, 일출) 미국의 '유니티'(Unity, 통일), 러시아의 지원모듈인 '즈베즈다'(Zvezda, 별) 등 3개의 모듈이 연결돼 있다.

일본은 최근에 공모를 통해 국제정거장에 들어가는 자국의 모듈을 '기보'(Kibo, 희망)이라고 이름 붙였다.

佛, 아리안스페이스

([http : //www.arianespace.com](http://www.arianespace.com))

▶ 유럽우주청(ESA, [http : //www.esa.int](http://www.esa.int))과 발사계약 체결

지난 6월 7일 열린 베를린 ILA 2000 에어쇼에서, 아리안스페이스와 ESA는 유럽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계약을 체결했다. 10억 유로를 상회하는 이번 계약은 아리안 5ES 발사체로 ATV(Automated Transfer Vehicle)발사를 총 9회 실시할 예정이다.

5ESV는 EPS/V가 장착된 중형 발사체로 오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발사할 계획이다.

ATV(Automated Transfer Vehicle)은 발사시 중량이 12톤에 달하는 무인 화물 우주선으로 국제 우주정거장(ISS)에 7.5톤에 달하는 장비, 물, 산소, 연료 및 기타 비품을 매회 발사 때마다 공급하게 된다. 발사 후에는 ISS에는 최장 6개월간 도킹되어 있으면서 대기인력으로 인한 자연권 궤도 축소를 보정하기 위해 정거장 궤도를 정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아리안 5ESV는 15개월마다 한 번 정도로 300km 고도, 51.6도 경사의 원형궤도에 ATV를 직접 발사하게 된다. 이는 ISS와 같은 궤도로, 자체 추진 모듈을 이용하여, 우주 정거장과 만난 뒤, 궤도내 추진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모듈인 러시아 Zvezda 모듈의 기미(幾尾) 끝에 도킹하게 된다. ATV와 아리안 5 발사를 통해 국제 우주 정거장 운영 단계 작업에 대한 유럽의 기여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中 'CDMA' 채택 유력

▶ 정보산업부 부장 전단계 IS95 도입 강조

중국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우지찬 중국정보산업부 부장은 최근 국내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CDMA 포기설을 일축하고 cdma 2000의 전단계 기술인 IS95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관리들이 지난 몇 달간 CDMA 채택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지만 주무 부처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CDMA 방식 채택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제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이자 CDMA 사업의 주체인 차이나유니콤(중국연합통신)은 지난 6월 CDMA 채택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CDMA 채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되고 있다.

CDMA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퀄컴을 비롯해 루슨트테크놀로지스와 에릭슨, 현대전자 등 중국의 CDMA 사업과 관련된 해외 업체의 관계자들은 연합통신측과의 접촉과정을 통해 낙관적인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 中, 차이나유니콤 CDMA Network 구축

중국 제2위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중국연합통신)은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동양일보가 관련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지난 9월 4일 보도했다.

동양일보는 중국 신식산업부(정보산업부)가 현재로서는 차이나유니콤에 제2세대망인 CDMA IS-95A나 제3세대망인 CDMA-2000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도록 할 지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CDMA-2000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퀄컴사의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한편 제2세대망인 CDMA IS-95A의 운용을 차이나유니콤에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표준에 있어 유럽식인 GSM과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CDMA를 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5170만명 가운데 GSM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 中 중흥통신

우리나라 CDMA 기술 활용, 단말기 생산

우리나라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전수된다.

지난 9월 21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중흥통신의 후웨이꾸이 총재는 CDMA 상용화 중중국인 한국의 기술인력을 활용해 2세대 CDMA 단말기를 생산하고 3세대 이동통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흥통신은 '99년 9월 에셋플러스(대표: 노익현) 등과 함께 자본금 35억원 규모(중흥통신 지분 65%)로 CDMA 단말기 개발업체인 ZTE 퓨처텔(대표: 심재용 <http://www.futuretel.co.kr>)을 서울에 설립했다.

또 중흥통신은 중국정부로부터 CDMA사업 비준을 마치고 LG전자와의 시스템 합작사업을 위해 설립한 「심천 ZTE-L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의 등록을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중흥통신은 코오롱정보통신(대표: 유명렬)과도 이동통신장비 개발·생산·판매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중국에 설립키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코오롱정보통신은 연내에 중흥통신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ZTE퓨처텔은 최근 차이나유니콤(회장: 양시엔주)이 국제 CDMA 표준화기구에 제안한 RUM(Remote-Us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방식을 채택한 이동전화 단말기 「ZTE802」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중이다.



이에 맞춰 중흥통신은 중국정부가 CDMA 채택을 확정하는 대로 심천 공장의 CDMA 단말기 생산능력을 연 150만대 규모로 증설해 ZTE802를 생산, 차이나유니콤에 공급할 예정이다.

중흥통신의 CDMA 책임자인 이바오창씨는 2, 3년 내에 중국의 CDMA 가입자가 50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20%를 중흥통신이 점유할 것이기 때문에 ZTE퓨처텔은 연간 5000만 달러 상당의 기술 수출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통신은 지난해 약 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국유 민영기업으로 중국내 교환기 및 접속시스템시장 20%, 영상회의시스템 시장 67%를 점유하는 대형 통신장비업체이다.

日, 후지쯔

▶ 루슨트·NTT커뮤니케이션 공동으로 IMT2000 기간 통신망 실험

일본 후지쯔, 루슨트테크놀로지스, NTT커뮤니케이션웨어 등은 NTT도코모가 내년 5월 시작할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의 기간통신망 시험을 9월부터 공동 추진했다고 「일경산업신문」이 보도했다.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상에서 인터넷프로토콜(IP) 기간통신망 시스템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시험은 9월에 도코모에 시스템이 납품돼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험에는 후지쯔가 데이터 중계기인 라우터, 루슨트가 음성분야 통신기기, NTT커뮤니케이션웨어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제공한다.

▶ 후지쯔·알카텔, 차세대 이동 시스템 개발 합작사 설립

일본 후지쯔와 프랑스 알카텔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시스템 개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정식 계약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프랑스 파리근교에 설립되는 양사의 합작사 「에보리움SAS」는 알카텔이 66%, 후지쯔가 34%를 출자

한다.

이 합작사는 IMT2000 기술규격인 광대역코드분할접속(WCDMA)방식의 통신시스템 개발, 제조 이외의 마케팅 등을 추진해 이 분야 세계 시장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 日, 방송위성(BS)디지털 시험방송 개시

일본의 디지털 방송시대 본격 진입을 알리는 방송위성(BS)디지털 방송이 12월 본 방송에 앞서 지난 9월 1일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BS디지털방송에는 NHK와 BS아날로그 방송사인 일본위성방송(와우와우)을 비롯해 민간방송 계열 5개사, 영화전문 방송국 스타채널 등이 참여하며 채널 수는 BS아날로그의 2배인 10개다.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BS디지털방송은 표준화질 3개 채널, 고선명의 디지털방송 4개 채널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방송시간은 NHK가 하루 24시간, 와우와우가 16시간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

시험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튜너 내장형 디지털 TV나 「D단자」로 불리는 접속단자를 장착한 기존 TV, 전용 튜너(수신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디지털 TV는 고선명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과 접속해 전자쇼핑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전 업체는 『방송·통신 결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TV가 침체에 빠져 있는 TV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日, 이동통신 설비투자 확대

일본의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단말기의 보급 확대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을 겨냥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NTT도코모, 일본텔레콤, DDI셀룰러, 일본이동통신(IDO), 투카그룹 3사 등 일본의 각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자수 급증에 대응한 단말기의 설비 증강 및 오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IMT2000 관련투자를 위

해 올해에만 1조 7200억엔을 신규 투자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NTT도코모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i모드」의 높은 인기를 감안해 이 서비스에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9430억엔을 투자한다. 도코모는 또 오는 2001년 5월 세계 최초로 IMT200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조엔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일본텔레콤 계열의 J폰그룹은 지난해보다 42.4% 늘어난 3190억엔을 투자한다. 이 회사 역시 도코모와 거의 같은 시기인 내년 5월에 IMT2000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도 계획 중이다.

반면 오는 10월 합병으로 「KDDI」로 변신하게 되는 DDI셀룰러, IDO, 투카그룹 3사는 합병에 따른 중복투자의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올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16.3% 줄인 4600억엔으로 책정했다. KDDI는 2002년부터 본격 뛰어드는 IMT2000에 회사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전신전화그룹(NTT)의 동서 지역회사들은 고정전화의 가입자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투자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낮춘 1조 1000억엔으로 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의 민간 설비투자를 주도해 온 통신분야의 주역이 고정통신에서 이동통신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日, 소니 - 마쓰시타 - 도시바 차기 통신위성 방송 제휴

일본의 소니와 마쓰시타전기산업, 도시바 등 주요 전자업체 3사가 내년 여름 시작하는 차기 통신위성(CS)을 이용하는 디지털방송에서 제휴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월 2일 보도했다.

3사는 공동출자로 TV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추진할 새 회사를 10월중에 설립하기로 했다.

3사는 또 유료방송의 요금부과시스템 구축과 이미 3사가 규격을 통일하기로 합의한 CS 및 방송위성(BS)수신기에 대한 판매촉진 등도 새 회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인 이들 3사가 제휴하는 것은 차기 CS 보급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日 IMT2000 사업자 확정 NTT도코모 등 3개사 선정

일본 우정성은 차세대 이동전화인 IMT2000 사업자로 NTT도코모, 영국과 일본 합작사인 J폰그룹, DDI-IDO그룹을 선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NTT도코모와 J폰그룹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WCDMA 방식을 채택했으며 내년부터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DDI-IDO그룹은 2002년부터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서 미국의 퀄컴사가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J폰그룹은 영국 브리티시텔레콤과 재팬텔레콤, 보다폰 에어터치 등 9개사가 IMT2000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만든 업체다.

▶ J폰, 차세대 이동 초기설비... 에릭슨에 일괄 발주

일본의 휴대폰 사업자인 J폰 그룹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의 초기 인프라를 에릭슨에게 일괄 발주하기로 했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J폰 그룹은 초기 서비스 지역인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개 도시에 설치하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방식 기지국과 교환기 등을 에릭슨에 발주하기로 했다.

J폰은 앞서 에릭슨 이외에 노키아, NEC 등을 IMT2000 인프라의 공급업체로 선정해 두고 있지만 이번엔 에릭슨 한 개사 만을 1차 공급업체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설비 도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슨은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J폰과 제휴하고 있는 영국 보다폰에어터치, 브리티시텔레콤(BT)등과의 수주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J폰은 우선 내년 가을 도쿄 등 3개 도시에서 IMT2000 서비스를 개시하고, 2002년 가을 전국 규모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는 1500억엔 정도를 투입해 도쿄 등 3개 도시에 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 **마쓰시타, 에릭슨과 차세대 이동사업 제휴**
기지국 설비·단말기 결합 일관시스템 구축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 그룹과 스웨덴 통신기기 업체 에릭슨이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에서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두 회사는 에릭슨의 기지국 등 인프라 설비와 마쓰시타의 휴대폰 단말기를 결합, 일관 시스템을 구성한 뒤 내년부터 유럽 휴대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쓰시타는 특히 이번 제휴를 계기로 유럽에 휴대폰 단말기 생산공장을 신설, 유럽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계기로 유럽을 비롯해 세계시장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는 마쓰시타와 유럽 지역에서 보다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에릭슨의 이해가 맞물려 성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쓰시타와 에릭슨은 오는 2002년 IMT2000 서비

스가 본격화하는 유럽에 이어 아시아 등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제휴 부문은 유럽과 일본에서 IMT2000 기술규격으로 채택하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통신 시스템이다.

양사는 마쓰시타 그룹 산하의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인 마쓰시타 통신공업의 차세대 제품과 에릭슨의 기지국·교환기 등 인프라간의 접속 실험을 거쳐 일관 시스템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단말기 브랜드는 마쓰시타의 「파나소닉」으로 하고 수주에는 마쓰시타전기도 가세할 예정이다.

마쓰시타 통신공업은 이번 제휴와 관련, 내년중 유럽에 연산능력 2000만대 규모의 휴대폰 단말기 생산공장을 새로이 건설할 방침이다.

투자액은 40억~50억엔으로 예상되며 체코 등 동유럽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연산능력 1000만대 규모의 영국 공장에 이어 유럽에서는 두 번째 설립되는 휴대폰 생산공장이 된다. 마쓰시타 통신공업은 일본 국내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서는 약 30%의 점유율로 최대이지만 세계시장에서는 5.5%(99년)의 점유율로 5위에 불과하다.

현행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해 유럽 등으로의 본격 진출이 늦었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휴대폰 단말기에서 세계 3위(점유율 10.5%)이고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제품도 판매하지만 마쓰시타의 제휴로 유럽에서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